

장학금 간증

주님의교회에서 2년 동안 장학금을 보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저는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

다. 그런 저에게 2년 전부터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교회의 장학금을 첫 학기에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 때 저는 낮이면 학교공부, 밤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항상 12시나 1시였습니다. 과제까지 하면 거의 하루 4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몸은 늘 지쳐있었습니다. 그 때 장학금을 받고 흘렸던 감사의 눈물이 공부하는 힘이 되어 그 학기부터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외국인 이지만 같은 과목 배웠던 한국친구 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교수님한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학부 수업에 들어가면 성적 잘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의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저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에 온 후에 믿기 시작하고 그 동안에 다니던 교회에서 중국어 교실에 중국어 강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곳 말고도 금요일 마다 영광교회에서 중국유학생 모임을 통해서 성경공부를 하고, 토요일 마다 교회에 다니던 오빠언니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가 생기고 삶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2년 동안 성격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틈틈이 엄마에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받았던 도움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부터 많은 교회이야기를 들으면서 2010년 여름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는 엄마가 어느 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엄마와 전화할 때의 통화 내용은 대부분 성경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교회가 2년 동안에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가족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서울 여자대학교 - 우 팽)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교회소식 이모저모

- 송구영신예배



2010년을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새해에 새롭게 변화된 예배 양식들

- 주일예배에 참회의기도 추가
-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새번역 사용
- 파송의 찬양으로 주기도송 사용
- 찬양대 찬양후 아멘으로 화답
- 4부예배 시간변경 : 2011. 2. 6(주일)부터 오후2시

- 8단계 개강 축하공연



1월 19일(수), 12단계 성경공부의 8단계가 개강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양육클래스의 한국무용반에서는 8단계 개강을 축하하는 공연을 가졌습니다.

- 예수친구사역훈련 오리엔테이션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친구사역훈련 오리엔테이션이 1월 23일 주일 오후 3시3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비전나눔 2) 훈련 안내 3) 팀별 모임 4) 훈련생 전체 서약식 및 찬양연습의 순서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기증

도서를 기증해 주세요. 읽으시면서 감명 깊었던 책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나, 다 읽으신 책, 집에 곱게 모셔 놓은 책! 그 감동과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의 : 김현희 권사 010-2289-9258)

- 가락동 경로당 봉사



1월 25일(화) 12시,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가락시영 제1경로당을 방문하여 70여분의 독거노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주님의교회 복지 사역팀에서 준비한 구정선물을 전해드리고, 떡국, 감주, 과일 등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어르신들과 같이 나누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 4/4 분기 제직회, 공동의회

1월 19일(수) 12단계성경공부에 이어 4/4분기 제직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보고와 정재상 신임 부목사에 대한 청원 건이 잘 통과되었으며, 26일(수)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2010년 결산보고와 2011년 예산안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 차량안내부 부탁 말씀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예배 시 교회 주변 주차단속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교회인근 이면도로상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인근주민들의 주차단속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저희들이 관계구청에 최대한 단속완화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일 예배차량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교회 주변의 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단속 요청 민원도 집요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보다는 자주 주차위반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탁말씀

1. 주일예배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인근의 공용주차장도 이용 바랍니다. (아구장, 탄천))
2. 교내에 일열주차 하신 교우님들은
A. 예배 후 즉시 차량이동
B. 기어 중립, 브레이크 풀기(일렬주차)
C. 전화번호 남기기를 실천합니다.
3. 예배 후 출차시는 가급적 정문에서 우회전하기
(우성아파트 방향)
4. 2부 예배 후 귀가 하실 분은 3부 시작 15분 전까지 (11시 15분) 출차 바랍니다.

함줄함울의 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최용석 목사 T.010.4234.4489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
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_ 눅 23 : 28

통 권 제 278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1월 30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제4회로 열린 아프리카 대륙 선교사 대회에 잘 다녀왔 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도우시는 하 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대회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각 나라별 선교의 현황을 발표하고 미래선 교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튀니지, 브룬디, 콩고, 우간다,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가나, 남아 공, 잠비아 등 대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 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 면 각기 다른 자신들만의 애환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특별히 대륙 전체를 휩싸고 있 는 에이즈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다시금 감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대 해서도 깊은 경이를 표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특별히 케냐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 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동부 아프리 카 장로교 대학교 (The Presbyterian University of East Africa)를 방문했을때 케냐 총회의 총회장도, 학교 총 장도, 여러 학생들도 모두 이 소망을 품고 함께 헌신하 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들의 이런 열

정을 지원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교육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 회가 아프리카 대륙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하여 주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잠시 시간을 내어 도심을 벗어나 대륙의 중심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시적 인 대륙의 느낌은 케냐나 나이로비에서는 전혀 맞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기둥을 삼고 그 위에 소똥으로 발라 만든 집들은 대자연의 일부였 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집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대자연을 거스르고, 때론 하나 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시적인 대륙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한 느낌이란 까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과학과 성령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륙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 감동은 지금도 제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대륙에는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 활하게 펼쳐지는 대륙에 자연의 바람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바람이 스 치고 지나갑니다. 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헌신의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 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이 바람이 오 늘도 주님의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2011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_ 눅 23 : 28



주간 목회력

2. 6(주일) 2011-2기 새가족 양육시작
회계처리 교육 / 오후 1시 (소예배실)

2. 2(수), 5(토) 12단계성경공부 휴강

〈2011년 주님의교회 대내외 장학생 선발〉
접수 : 2. 6 ~ 2. 13 교회사무실 (7일 (월)은 제외)

〈2011년 서리집사명단 확인〉
1층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예배 순서지〉
1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해에 담는 소망 / 신임교역자 소개	2면
교육목회원 / 아버지학교	3면
장학금 간증 / 교회소식이모저모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11년 주님의교회 제직수련회

1. 30(주일) 오후 3시 /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



“새 시대 새 일꾼”

_ 고후 5:11-19

새해에 담는 소망



서기장로 김용일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외람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12단계 성경공부가 8단계에 접어들었고, 6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하는 '예수친구사역' 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참석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작정입니다.

평생 교회와 더불어 살아온 삶이지만 지금의 자화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도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게 서기장로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

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운 짐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교인수 수천을 헤아리는 대형교회이지만 **성도간의 따뜻한 교제가 뿌리내리는 초석을 다지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학교에서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늘 담겨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길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남녀 사이에, 세대 사이에, 직분자와 일반성도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뤄지는 친교의 모습이 우리가 속한 사회도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중점사역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교육에 우리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교육부서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명성을 날리는 ‘주님의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모든 영역에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는 특별히 교역자나 직분자의 노력이 필수적인 바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소박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 동안 끊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임 교역자 소개



부목사_정재상 <20플러스>

생기발랄한 청년들과 함께 하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 청년들은 주님의 교회의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교회에 있

는 동안 주님의 교회의 성도이자 목회자이고자 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주님의교회를 위해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청년들로 양육하고 인도하고 싶습니다.



전임 전도사 문현주

<출판, 전도지, 새가족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 헌신하게 된 사역은 12단계 성경공부 교재와 예수의 친구 사역에서 나누고 있는 글을 책으로 출판하

는 사역,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전도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새가족팀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여정과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준전임목사 이혜경

<아기정원, 아기부>

아기부는 15개월 미만의 아기들과 엄마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 아기정원(20~40개월)은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서 주관하는 신앙교육활동으로서 주중(목요일)에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입니다. 저는 사뱃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샘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퍼 올리며, 그것이 엄마와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어 모두가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길 소망해 봅니다.



준전임목사 심진희 <중등부>

“소통의목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통하는 사람으로 나와나, 팝콘트리 중등부 모두가 나아가길.



준전임목사 류은정 <청소년사역원>

청소년사역원 창밖으로 하얀빛으로 단장한 운동장을 바라보며 삶의 한 언저리를 펼쳐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자리하고픈 바람을 간직하며 섬김과 나눔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봅니다.



교육전도사 이희영 <영아부>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즐겁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영아부와 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부서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한 귀한 아기 하늘 씨앗들을 꿈과 믿음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영아부를 통해 하하웃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아부 아기들이 기쁨아이, 믿음아이, 비전아이로 자라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교육전도사 문규호 <초등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의 어린 가슴속에 성경을 아는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초등부 사역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각오로 제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교육전도사 최성기 <중등부찬양>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2. 아이들과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3.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숫자로 평가하는 세상과는 달리 존재자체로,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교육전도사 차민녕 <고등부찬양>

블랙가스펠과 모던 위십 등 여러 장르를 함께 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가르치며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직된 예배가 아닌 자신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아이들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세대의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온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자인도자로 섬기겠습니다.

“2011,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_ 박혜성 목사(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한 노인이 과실수를 심고 있을 때 젊은이가 다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나요?” “세월이 많이 지나야 열리게 될걸세”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인가요?” “물론 아니지. 이 열매는 내 후손들이 먹게 될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오래 전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들이 내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으셨기에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 나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라네”

2011년 우리교단 총회의 표어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이고 총회교육지원부의 교육주제는 “교회와 함께 가는 다음세대”입니다.

교회마다 늘 교회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모든 교회가 신앙의 대를 잇는 다음세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기둥들로 자라날 자녀들에게 관심과 투

자를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도 2011년 교회교육에 집중하는 한해로 지나기를 원하며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첫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18세가 되기까지 1:1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청소년시절까지 복음의 내용을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현재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이 점점 약화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교회 속에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1.5배나 많았던 시절이 30년 전인데 지금은 어른의 25%라는 통계만 보더라도 어른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교회의 모습을 짐작만 해 보아도 가슴이 서늘해 집니다.

물론 출산률 저하등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제치하와 전쟁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키신 신앙의 1세대의 교육을 받았던 지금의 부모들의 신앙이 어느 사이 영적인 열정이 사라진,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이 약화된 많은 요인은 아닌지, 세상의 입시위주의 파도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지연이나 포기를 자처하지는 않았는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가정과 교회 속 신앙의 모습은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린 시절의 신앙경험을 소홀히 하는 현재 우리의 점검이 필요한 시대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라”(신 6:2)

“이스라엘아 들으라(쉐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6:4-9) 부모와 교회의 지극한 관심과 구체적인 교육으로 자녀들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아기부(하임)부터 영유아유치부-유년 초등소년-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12부서에 15명의 교육교역자들과 420여명의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교육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들을 만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도록 수고하겠습니다. 가정과 연계하는 자료들과 교육내용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교에 가기 전 말씀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고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올해 작성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녀들과 자주 나누어주시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자주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 책상에 앉을 때 볼 수 있도록 말씀카드를 자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을 이변 호부터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소식이 연재된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우리교회 각 교육부서의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기도로 다음세대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가 큼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더욱 커지시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교 _ 박중순 장로

아버지학교(두란노아버지학교 강남26기)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열리고 있다. 이 아버지학교는 지난 1월10일 시작하여 하여 2월13일까지 5주간 매주일 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 아버지학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며, 목회자와 일반성도,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협력운동이며,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학습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의 실천운동이다.

아버지학교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아래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그리고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5주간 매주 열린다.

첫 주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육신의 아버지 및 자녀와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악한 영향력은 당대에서 끊고 선한 영향력을 자손에게 물려주기로 결단한다.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둘째 주에는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로 남성을 지탱하는 4가지 요소로 가족을 보호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진 왕, 가족을 위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전사, 진정한 친구, 참된 승승을 제시하며, 이 시대 남성을 상실하게 된 근본원인인 그릇된 남성문화, 즉 체면 문화, 일 문화, 음주 문화, 섹스 문화, 레저문화, 폭력문화 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남성의 모델인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남성이 되기를 결단한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외톨이로 소외되



어 가던 아버지들이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은 아버지의 진정한 남성이 회복되어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셋째 주에는 아버지의 사명은 자녀의 삶의 원천, 삶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의로운 아버지가 되어 자녀에게 미래의 보장이 되어 준다는 것이다.

넷째 주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축복권으로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하며, 훈육권을 가정에서 올바르게 행사하며, 올바른 신앙의 전수권을 행사하여 가족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여야 함을 학습한다. 아버지의 영성의 중요성을 학습하며 불신자 아버지와 교회를 떠났던 아버지,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5주차에는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하며 세족식 등을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성적인 순결, 삶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영적인 성결을 결단하며 수로식을 함으로서

끝나게 된다.

이 아버지학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아버지학교에는 아버지 역할을 잘못하는 아버지가 오는 곳이다”라는 오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학교에는 좋은 아버지들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오는 곳이다.

아버지학교에서는 예수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하는데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물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조금은 떠밀려 참여하였지만 그 가정에 웃음이 살아난 우리 교회 지원자 아버지들과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런 곳인줄 몰랐다. 참여하기를 잘했다. 우리 교회 남성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학교인가?’, ‘아버지학교는 젊은 아버지들만 가는 곳이다.’, ‘할아버지학교가 있으면 가겠다.’ 등등의 오해가 그것이다. 물론 빨리 교육을 받을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겠지만 할아버지들도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물려 줄 수 있다. 실제로 80대는 물론 90대에 참여하는 아버지들, 아들과 사위, 그리고 사돈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아버지학교는 또한 남편학교이기도 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남편이 아버지학교에 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가정사역팀이 주관한 이번 아버지학교에는 우리 교회 사무장로인 박중규, 신정웅, 엄주청 장로님, 그리고 박다니엘 목사님을 비롯한 38명의 우리 교회 성도를 포함한 90여명의 지원자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김명훈 안수집사 011-285-6032)